

월간 오리마을 100호가 있기까지 월간 「오리마을」 창간자 조문규 前 한국오리협회 국장



조문규
前 한국오리협회 국장
現 설레인덕 대표

월간 오리마을이 2011년 10월호로 통권 100호를 맞이하였다. 협회는 1992년 창립 후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15일 협회 소식지, 「오리마을」을 발간했다. 조문규 前 한국 오리협회 국장은 1995년 5월에 입사하여 근 12년 여간 근무, 오리산업의 규모가 작을 때부터 협회 살림을 함께 일궈 내온 초창기 멤버다. 월간 오리마을은 1996년 창간 이래 오리산업 대변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하며, 회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협회 발전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준 거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오리산업과 협회가 힘든 시기 발행이 중단되는 시련도 겪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견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한 결과 산업은 눈에 띄게 비약하였으며, 월간 오리마을도 오리산업과 함께 성장했다. 지금의 월간 오리마을을 있게 한 조문규 前 한국오리협회 국장을 만나 오리마을의 당시 상황과 창간 배경을 들어 보았으며, 앞으로 오리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았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리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오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리협회를 창립하신 초대 회장님이하 각 지회 임원,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리 산업의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오리마을의 기념호를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국오리협회와의 인연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의 농축산업은 개방화의 초기단계로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부터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수입이 개방되면 모든 산업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리 산업은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91년도 축산물중 유일하게 수입이 자유화되어 저가의 중국산 오리고기가 처음으로 수입되었고 이 같은 위기의식은 오리 산업 종사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어 92년도 오리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농수축산신문 축산부 기

자로 양돈 및 특수가축분야를 맡고 있었고 93년도에 오리농법이라는 세미나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 오리협회와 인연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마을은 창간 배경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가장 큰 숙제는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그러자면 오리고기 요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요리책을 만드는 일, 다음으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회장단에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95년도 5월 협회에 처음 입사하여 중점 추진한 사업이 오리고기 요리책을 제작하여 건강에 좋은 기능성 오리고기를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를 확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주요 오리전문점을 탐방하여 요리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경기대학에 의뢰하여 다양한 오리고기 요리를 개발한 요리책을 제작하였고 다음으로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오리마을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리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고 정부, 학계 등 각분야의 관심이 전혀 없던 시기에 협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을 회원 및 각 분야에 알리는 일은 시급한 과제였고 오리마을의 창간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오리마을의 주요 편집방향

초창기 오리마을의 주요 편집방향은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회의 주요한 사업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일, 보다 선진화된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 주요한 오리고기 요리를 소개하여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핵심코너는 오리 정보, 각 분야별 사양관리

기술, 오리 요리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탐방코너 등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오리마을 제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

당시 오리마을을 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원고를 집필할 필자가 부족하여 알찬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타 축산업의 경우 대학, 주요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오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또한 협회의 열악한 재정으로 제작비용이 부족한 것 역시 어려웠던 점이었고 결국 매월 발간되던 오리마을의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월간 오리마을에 바란다

지금의 오리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협회의 사업여건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으며 오리 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협회와 주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오리마을에 거는 기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매체의 발달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달되는 생방송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발간되는 오리마을은 단순정보를 기록 내지 전달해 주는 기능을 넘어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결과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오리 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전문지로 거듭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